

‘일본시찰단’의 근대관광적 성격

- 근대성의 양면성(로고스-에로스) 개념을 중심으로 -

제옥경*
newlooktour@hanmail.net

<目次>

- | | |
|-------------------------------|---|
| 1. 머리말 | 3.1 1910년대 전후의 일본시찰단 |
| 2. 한국 근대관광의 성립 | 3.2 1920년대 일본시찰단 |
| 2.1 근대관광의 물적·제도적 조건의 성립 | 3.3 1930년대 일본시찰단 |
| 2.2 근대관광의 로고스-근대성과
에로스-근대성 | 4. 근대의 양면성: 로고스와 에로스 근대성을
통해 본 일본시찰단의 성격 |
| 3. 일제 강점기의 일본시찰단의 구성과 목적 | 5. 맺음말 |

주제어: 일본시찰단(Observation trip to Japan), 근대관광의 시초(Beginning of modern tourism), 로고스-근대성(Logos-Modernity), 에로스-근대성(Eros-Modernity), 근대관광의 성격(Character of modern tourism)

1. 머리말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광연구는 경영·경제학적인 접목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양국의 관광연구도 다양한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고는 한말과 일제강점기하에 이루어졌던 ‘일본 시찰단’¹⁾에 대하여 지금까지 다루어졌던 ‘식민지성’이라는 역사성이 아니라, 관광의 근대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찰단을 분석하여, ‘근대 관광단’으로서의 ‘일본시찰단’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본고에서는 한말과 일제시대의 ‘일본시찰단’을 단순히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이라는 그 수동성보다는, 근대적 관광의 욕구충족이라는 능동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근대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 동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시간강사

1) ‘일본시찰단’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신문사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불렸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나 매일신보는 ‘내지시찰단’이라고 하였고, 조선인이 경영하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일본시찰단’이라 하였다. 반면에 일본측 신문사에서는 한일합병이전에 이루어졌던 시찰단은 ‘한국관광단’이라고도 하였다. 이런 명칭에서부터 당시 일본시찰단의 ‘근대성’과 ‘식민지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적인 관광이라는 것은 영국의 산업 혁명 이후 대규모 운송 수단인 철도가 등장하고 관광이 가능한 계층이 탄생되면서 하나의 자본주의적 산업으로서 성장한 것을 말한다. 1845년 근대관광의 창시자로 불리는 영국의 토머스 쿡(Thomas Cook)은 세계 최초로 여행사를 설립하였고, 유럽사회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박람회와 해외 식민지 관광으로 인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한편 비서구 국가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근대관광도 서구와 같은 시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나, 근대화의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 즉 서구의 자발적 근대화(voluntary modernization)와 일본의 서구화(westernization)로서의 근대화라는 역사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근대관광 역시 서구 근대화 모델의 수용, 모방하는 과정의 한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근대관광의 시발점은, 일찍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의 대륙진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된 조선철도라는 근대적 기반시설의 확립과 함께, 식민지하에서 개최되었던 수많은 박람회에 파견된 시찰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881년 조사시찰단(朝仕視察團)²⁾이 최초로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였는데, 그 시찰단 인물들의 기록에서부터 이후 1909년 경성일보사가 94명(한국인)의 ‘일본시찰단’을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1910년과 1920년대에 ‘일본시찰단’의 행사가 빈번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기존의 시찰단과 달리 전시동원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시찰단이 파견되었다.

최근에 ‘일본시찰단’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류학·종교사적인 시각이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사의 일환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³⁾ 한편 현재까지 관광학에서의 연구는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만 ‘일본시찰단’을 다루어 온 것이 대부분으로, 한국의 근대관광을 사회·문화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의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관광의 경제적인 측면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관광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의미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근대관광의 시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제하에서 이루어

2) 朝士視察團은 1881년(고종 18) 4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일본에 파견되었던 문물시찰단으로서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리우며, 조준영(趙準永)·박정양(朴定陽)·엄세영(嚴世永)·강문형(姜文馨)·조병직(趙秉稷)·민종묵(閔種默)·이현영(李繩永)·심상학(沈相學)·홍영식(洪英植)·어윤중(魚允中)·이원회(李元會)·김용원(金鏞元) 등 12명을 일본 명치유신의 국정을 살피고 돌아왔다. 그 기록은 『朝士視察團關係資料集』에 남겨져 있다.

3) 이경순(2000) 「1917년 불교계의 일본시찰 연구」, 성주현(2003) 「일제의 동화정책과 종교계 동향」, 조성운(2004) 「매일신보를 통해 본 1910년대 일본시찰단 연구」, 박양신(2005)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 조성운(2006) 「1920년대 초 일본시찰단의 파견과 성격」 등이 식민지 지배정책사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며, 한규무(2005) 「한말 한국인 일본관광단연구(1909-1910)」, 李良嬭(2004) 「日本植民地下の觀光開發に關する研究」, 박찬승(2006)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의 일본시찰-1920년대 이후 이른바 ‘内地視察團’을 중심으로-」 등은 인류학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종교학적인 관점에서는 김경집(2002) 「日帝下佛教視察團연구」가 있다.

조성운(2007) 『식민지 동화정책과 협력 그리고 인식』 수요역사연구회편, 재인용.

졌기에 정치적인 관점 즉 식민지정책이란 관점에서의 접근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일본시찰단’이 가지고 있는 관광의 근대성이란 관점에서의 접근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근대전환기에 있어 ‘일본시찰단’에 대하여 그 시대적 배경과 그 목적, 주체, 일정, 구성원의 계층을 분류함과 함께, 그 구성원들의 느낌, 감성이라는 측면을 확인한 후, Ning Wang의 근대성의 양면성 즉 로고스-근대성(Logos-Modernity)과 에로스-근대성(Eros-Modernity)이란 개념을 이용하여, ‘일본시찰단’의 근대관광적 성격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2. 한국 근대관광의 성립

2.1 근대관광의 물적·제도적 조건의 성립

서양이나 동양 모두 관광의 역사는 전쟁을 제외한 이동의 역사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중세까지 여행과 관광의 개념이 혼용되어왔으며 체육·종교·요양 등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유형을 띠고 있었다.⁴⁾ 그러나 여러 관광학자들이 정의한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이동한 것을 관광이라고 한다면, 본고에서는 근대에서의 여행과 관광을 ‘관광’으로 통일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이러한 근대적 의미의 관광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본격화되었는데, 토마스 쿡이 철도 관광을 위한 여행 알선 업체를 창설하여 처음으로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였고 기선 발명 이후에 세계적으로 관광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⁵⁾ 이러한 관광의 보편화의 시작으로 관광이 대중화되기까지는 대량수송매체인 철도의 보급과 커뮤니케이션과 숙박시설의 발달,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계층의 탄생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근대 대중관광(1876-1988년)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면 식민지 관광 시기(1876-1945년), 국민관광의 태동기(이승만 정부 시기), 국민 대중관광의 형성기(박정희 정부 시기), 국민 대중관광의 성장기(전두환 정부 시기)로 나뉜다.⁶⁾

1825년 등장한 철도는 산업이외에 관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근대의 산물인 기차의 등장으로 관광은 점차 대중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경인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근대적 관광이 유입되었고 이어서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고 1906년에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그것은 아시아에서 서양의 근대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일본의 관광이 그대로 조선에

4) 국사편찬위원회편(2008)『여행과 관광으로 본 근대』두산동아, p.20

5) 위의 책, p.20

6) 인태정(2007)『관광의 사회학-한국관광의 형성과정』한울 아카데미, pp.100-139

이식되었다.⁷⁾ 이른바 한국 근대의 교통시설은 일제의 제국주의적 세력 확장을 위한 야심의 표출인 동시에 일제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원의 조달과 인력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것이었다.⁸⁾ 철도와 함께 근대 관광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일 것이다. 교통수단의 시각표나 엽서, 여행안내서 그리고 박람회 등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일제하에서 이루어진 ‘일본시찰단’은 조선총독부의 지휘아래 이루어졌고 신문을 통해 대대적인 모객이 이루어졌으며 시찰단이 방문했던 박람회는 시찰단의 파견 장소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박람회의 개최는 대중의 여행 심리를 자극하여 관광의 대중화에 영향을 끼쳤다.⁹⁾ 숙박시설로서 ‘호텔’이라는 명칭은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19세기 중엽 호화스러운 호텔이 등장하였다. 중세의 인(Inn)과 다른 호텔은 19세기 경제력이 있는 신흥자본의 등장, 관광객의 증가와 기호변화 등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기업적인 숙박업을 기업으로 전환시켰다.¹⁰⁾ 우리나라의 최초의 숙박시설은 1888년 생겨난 대불호텔이었고 서울에는 일본풍의 여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의 근대관광의 물적·제도적 기반조건의 구축은 19세기말부터 시작되었으며,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후 그 기반조건들은 점차 확대되어갔다.

2.2 근대관광의 로고스-근대성과 에로스-근대성

닝왕(Ning Wang)에 따르면, 관광은 근대성(Modernity)¹¹⁾ 탄생의 신호탄이자 근대성의 결과이며 근대성의 정신적 자원의 일종이며, 과잉 단순화의 위험이 있으며 관광의 역사가 주변적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근대성의 역사¹²⁾라고 한다. 또한 그는, 관광이야말로 근대의 양면성 즉 로고스-근대성(Logos-Modernity)¹³⁾과 에로스-근대성(Eros-Modernity)¹⁴⁾을 가장 잘 나타내

7) 위의 책, pp.62-75

8) 서기재(2008)「관광의 역사와 문헌을 통한 한국 근대 관광 고찰」『아시아디아스포라』2집, pp.13-14

9) 국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p.201

10) 서기재, 앞의 논문, p.10

11) 물론 근대성 그리고 탈근대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학자와 학설이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관광과 관련된 근대성의 논의로서 닝왕의 로고스-근대성과 에로스-근대성이란 개념만을 다루며, 근대성과 탈근대성에 관한 논의는 제외한다.

12) 닝왕(Ning Wang)저, 이진형의 역(2004)『관광과 근대성』일신사, p.23

13) 닝왕은 마르쿠제(H.Marcuse)의 로고스와 에로스에 대한 해석을 차용하여, 근대를 로고스가 에로스를 억압하는 문명으로 보고 있다.

위의 책, pp.68-69

14) 닝왕에 따르면, 에로스 근대성은 밝고 긍정적인 면으로 애정이며 근대성의 흡인, 교통·통신의 발달, 기술혁신, 인프라 발달, 산업이며 기호, 이미지, 담론, 상징으로의 유혹이며 관광경험 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다. 한편으로 로고스 근대성은 증오이며 어둡고 부정적인 면으로 근대성의 압박으로 소외, 동질화

고 있다고 한다. 즉 낭왕은 근대성의 과정에는 합리성이 비합리적인 요인들을 억압하고 복속시키는 것¹⁵⁾이 근대성의 로고스라고 보았다. 말하자면 그가 말하는 근대성의 로고스란, 인간의 사고, 행위에서부터 사회에 이르는 근대세계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인간의 이성(Reason)의 산물이며, M.Weber가 근대세계 전반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제시한 형식 합리성(formal rationality)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로고스는 근대성의 공간을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공간에 에로스¹⁶⁾를 공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낭왕은, 에로스를 비억압적 문화의 조건하에서 존재의 이상적인 상태로 보고, 본능적인 즐거움의 만족은 로고스와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고 장려된다고 하는 마르쿠제의 입장¹⁷⁾을 수용하며, 로고스가 근대성 공간을 지배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특정한 공간에 에로스를 공급하였다는 르페브르(Lefebvre)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즉 그는 근대성 과정에서 합리성이 비합리성을 억압하고 규제, 복속시키지만, 한편으로 근대성은 구별된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비합리적 요소(에로스)를 자격화하고, 승인, 인정하며, 찬양되기도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로고스-근대성이 지배적인 근대세계가 한편으로는 ‘열정의 사사화(privatizing of favor)’를 허용하는데, 이것은 자유로운 감정생활을 위한 범주를 제공하며, 인간의 충동과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수립해주며, 합리적인 자기통제 규율이 느슨해지고 합리성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허용하는 ‘자유지대’ 혹은 ‘탈출경로’를 허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근대세계에는 로고스적 근대성과 함께 에로스적인 대안도 제공되어있다는 것이며, 그는 이것을 대안적 근대성(Alternative Modernity)이라고 부른다. 이 대안적 근대성은 로고스-근대성이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찬미할 동안 생물학적 본능, 충동, 욕망, 자발성, 느낌, 정열, 상상력 즉 에로스를 찬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에로스-근대성이라고 명명하고 있다.¹⁸⁾

그리고 그는 제도화된 여가여행으로서 근대관광은 관광자 개인 측면에서 보면, 로고스적인 규율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에로스적 충동과 욕망을 충족시킬수 있는 에로스-근대성의 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대관광산업이란 측면에서 보면, 관광산업 그 자체는 로고스적 질서와 규율에 편입되어있다는 것이다. 즉 관광은 에로스-근대성의 사례이지

등으로 제시했다. 위의 책, pp.24-55

15) 근대성 논의에 있어서, 근대를 합리화(rationalization)의 확산과정으로 파악하고, 비합리적인 가치합리성(value-rationality), 전통성, 감정성이 목적 합리성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으로 파악한 것은 M.Weber이다.

16) 낭왕이 말하는 에로스는 물론 인간의 쾌락추구의 선천적 본능(instinct)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17) 물론 이런 마르쿠제의 에로스의 존재론적 중요성의 강조는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일종의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는다고 무시되기도 하였다.

18) 낭왕, 앞의 책, pp.70-72

만, 관광산업은 로고스-근대성의 일레가 된다는 것이다.¹⁹⁾

일반적으로 근대관광이라고 할 때, 물질·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근대성이란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관광은 로고스 혹은 근대의 합리성이란 측면과 에로스 혹은 비합리성이란 양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을 닮은 로고스-근대성과 에로스-근대성이라고 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근대관광은 로고스-근대성의 관점에서만 논해져 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닮은의 개념을 한말과 일제식민지 하의 ‘일본시찰단’에 적용해 보자면, 일제 식민지하의 일본시찰단이 가능하게 된 물질·제도적 기반, 그리고 일제에 의해 의도된 정책으로서 행해졌다는 점에서는 그 ‘식민성’ 즉 로고스-근대성에 해당될 것이며, 지금까지 ‘일본시찰단’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그 관점에서 행해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들이 일본시찰을 통해 개인적 욕구충족이나 만족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개인성’, ‘자율성’, 혹은 ‘탈식민성’ 즉 말하자면 에로스-근대성으로서 근대관광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시찰단의 여행경비의 일부는 보조를 받아 실시되었으나 자비 부담도 있었으며 시찰이외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져 근대문물을 접할 기회를 가졌으며 기차라는 근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통해 친숙한 것들과 분리되기도 하였다.

3. 일제 강점기의 일본시찰단의 구성과 목적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일제하의 ‘일본시찰단’에 대한 선행연구²⁰⁾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시대적 배경과, 그 목적, 주제, 코스, 구성원의 계층을 정리, 분류²¹⁾하고, 또한 시찰단의 방문소감 몇 가지를 발췌하여, ‘일본시찰단’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근대성과 에로스-근대성의 양 측면을 확인할 것이다.

19) 위의 책, pp.80-81

20) 일본시찰단에 대한 연구는 한말과 일제하의 1910년대와 1920년대, 1930년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성운은 『매일신보』를 통해 1910년대와 1920년대의 일본시찰단의 파견 배경과, 시찰단의 구성·경로·성격 등을 연구하였고 박찬승은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의 일본시찰을 1920년대 이후 이른바 ‘내지시찰단’을 중심으로 시찰소감을 분석하였다. 또한 박양신은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을 일본의 식민정책으로서 파악한 바 있다.

21) 일제하의 시찰단은 헤아릴 수 없이 그 수가 많다. 선행연구에서는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시찰단의 이름과 구성원 수 등은 신문사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3.1 1910년대 전후의 일본시찰단

시찰단의 효시는 1909년 경성일보사가 ‘일본시찰단’이라는 명목 하에 200여명을 일본에 파견한 것이다.²²⁾ 1909년 4월 시찰단은 부산-시모노세키-히로시마-오사카-나라-교토-도쿄-닛코 등의 일정으로 출발되었고 방문 장소는 해군공창, 조폐국, 철공소, 시멘트회사, 제철소, 방적회사 등 근대산업시설과, 교토, 나라 등 일본의 역사문화유적, 도쿄의 공원, 공장, 백화점, 역사유적²³⁾ 등 이었다. 이후에 출발한 시찰단 역시 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시찰경로는 거의 비슷하였다.²⁴⁾ 이와 같이 식민지 시기에 ‘내지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조선인이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이 시기의 시찰단이 형성된 배경을 보면 조선인에 대한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동화주의 채택, 식민지 지배 체제에 조선인 포섭필요, 조선의 여론을 주도하는 조선의 상층 및 중간 지배층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의 지배층을 상징, 식민지 지배에 적합한 형태의 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의 변화가 필요, 전통적인 향촌 사회의 질서 해체를 식민지 통치 방식으로 내세웠다. 결국 일본의 근대 문물의 우수성을 선전하여 조선인을 감복시키고 식민지 지배를 영구화하는 데 대한 협력자 혹은 조력자 양성을 위한 수단²⁵⁾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던 것이다. 매일신보의 기사를 중심으로 보면, 1910년대는 15회 정도의 시찰단이 일본을 다녀왔으며 지금까지의 기술한 시찰단 이외에도 동척 시찰단(1911~1915), 기독교 시찰단, 유생대표, 교육 시찰단, 불교시찰단, 구주시찰단, 잠업시찰단, 농사시찰단 등이 있다.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1910년대 실시된 일본 시찰단은 귀족, 도 및 군의 참사, 중추원 찬의, 군수, 면장, 신사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지배층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종교계 시찰단을 비롯하여 1918년 구주시찰단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농업, 대지주, 회사원, 무역상, 은행 중역, 실업가등이 참여하는 등 시찰계층이 좀 더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²⁶⁾

22) 조성운(2004)「‘매일신보’를 통해 본 1910년대 일본시찰단」『한일민족문제연구』6집, 한일민족문제학회, p.4

23) 박찬승(2006)「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의 일본시찰」『지방사와 지방문화』9집, 역사문화학회, p.204

24) 박양신은 1909년 4월 경성일보의 주최로 94명의 한국인이 일본으로 파견, 이후 1910년 4월 44명, 1910년 10월에 ‘조선귀족관광단’의 파견까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박양신(2005)「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동양학』3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참조

25) 조성운, 앞의 논문, pp.3-7

26) 위의 논문, pp.30-32, <부록1>시찰단의 구성원 참조

3.2 1920년대 일본시찰단²⁷⁾

1920년대 초의 일본시찰단은 3·1 운동 이후의 민심을 수습하고 식민지 지배를 재확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조선총독부가 추진하였던 사업이다. 시찰단원은 중추원 참의, 교사, 군수, 면장, 면서기, 도평의원, 면협의원, 실업가, 금융조합이사, 금융조합서기, 지주, 경찰, 지방유지, 의생, 유교 등의 종교인, 우량소작인등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시찰단의 파견을 통해 일본문물의 우수성과 선진성을 시찰단원에게 인식시켜 이들을 통해 지방 민중에게 전파하려고 한 것이 목적²⁸⁾이었으므로 1910년대 시찰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역사회에서 민중과 직접 접촉하고 대면하는 인물들이었다.²⁹⁾

일제하 35년 동안 파견된 일본 시찰단의 수는 약 400개 정도인데 이 중 일본 시찰단이 가장 많이 파견되었던 시기인 1920년부터 1923년까지는 시찰의 목적이 후쿠오카 공업 전람회, 규슈·오키나와 8현 연합 공진회, 도쿄 축산 박람회, 도쿄 평화 기념 박람회 등 박람회의 관람에 있었다. 이 시기에 파견된 일본 시찰단의 수는 154개이며 이는 전체의 38.5%에 해당된다.³⁰⁾ 1920년대는 박람회의 성공을 위하여 점차 ‘관광’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그 외의 경로는 후쿠오카-히로시마-고베-오사카-교토-나고야-동경-닛코가 기본적인 코스였으며 191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³¹⁾ 1920년대는 조선총독부 주최의 시찰단이 20여 차례, 자치단체 주최가 160여차례, 민간단체(종교계포함)가 50여 차례로 그 구성원의 변화도 1910년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³²⁾

3.3 1930년대 일본시찰단

1930년대 초중반 경제공황으로 인해 1931년부터 1936년까지의 시기에는 일본시찰이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1937년대 이후에는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강조하면서 조선인에게 일본

27) 일본 시찰단은 신문기사별로 정리한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1920년대에 관한 일본시찰단 일람표는 다음 저서의 <별첨1>을 참고하였다.

수요역사연구회편(2007)『식민지 동화정책과 협력 그리고 인식』두리미디어, pp.178-190

28) 조성운(2006)「1920년대 초 일본시찰단의 파견과 성격」『한일관계사연구』25집, 한일관계사학회, pp.330-336

29) 조성운(2007)「일제하 불교시찰단의 파견과 그 성격」『한국선학』18, 한국선학회, p.166

30) 국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p.231

31) 조성운(2006), 앞의 논문, p.336

32) 수요역사연구회편(2007)『식민지 동화정책과 협력 그리고 인식』두리미디어, pp.178-190 <별첨1>1920년대 일본시찰단 일람표를 참고로 하여 정리하였다. 1910년대에는 조선의 최상류계층만이 일본시찰단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쇄업자나 실업가등 민간단체 주최의 시찰단 30여차례나 넘게 생성이 되었고 계층의 다양화를 볼 수 있었다.

정신을 체득시키고자 신궁참배(성지참배)와 ‘선진지’시찰을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되었고 기독교시찰단, 유교시찰단, 불교시찰단등 종교시찰단이 눈에 띄었다.³³⁾ 조성운(2007)은 1930년대의 시찰단을 1기(1930~1936)와 2기(1937년 이후)로 나누고 있으며 우가키 총독의 ‘조선공업화정책’에 의해서 조선을 민족운동을 없애고자 하였고 1930년 국제관광국을 설치하여 관광산업을 국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관광사업에 진출하여 일본시찰단을 조직하기도 하였고 파견 주체는 행정부서, 언론기관, 경찰부 및 경찰서, 조선철도국, 경제관련 기관, 체신국, 교육회, 관광(여행)협회, 농회, 신사 등이 있다. 이중에서 경방단, 사상보국 연맹, 체신국, 신사, 방공단, 정총대, 육군훈련지원병, 국민총력 조선연맹 등은 제2기에만 보이는 것들이며 전시동원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시찰단의 구성원을 보면 면장·면서기, 도·부·군·면협의원, 교원, 상공업자, 청년, 사상전향자, 육군훈련지원병, 경찰, 정총대, 체신국원, 소학생 등이 주된 대상이었고 이중 사상전향자, 육군훈련지원병, 경찰, 정총대, 체신국원, 소학생 등은 제2기에만 보인다. 이점 역시 전시동원체제와 관련지어 시찰단이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의 시찰경로는 1920년대와는 달리 1930년대에는 이세신궁, 명치신궁 등 일본정신을 강조하는 시설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전신동원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짐작할 수 있다.³⁴⁾

한말에 고종의 명으로 일본을 방문한 신사유람단과 같이 특수하게 지정된 시찰단에서 시작하여 한일병합이 되기 이전에 1909년 경성일보사가 주최한 일본시찰단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과 맞물려 조선의 최상위계층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크고 작은 시찰단들이 형성되었고 식민지정책에 맞추어 그 계층은 조선의 최상위계층에서 민중을 가장 가까이 하는 계층으로 변화하면서 실업자, 낙농가, 유림계 인사, 교사, 종교인, 청소년 등으로 확산되었다. 근대대중관광은 특수한 계층만이 여행이 가능했던 시대와는 달리 좀 더 확산된 계층,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행이 가능한 계층이 탄생함으로써 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는 자의에 의해서 일본관광단이 형성이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시찰단이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일본을 다녀오고 또한 이러한 단체해외여행이 이루어지면서 개인들도 일부 한정된 지식층이나 종교인이기는 하지만 해외여행이 확산되는³⁵⁾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33) 조성운(2007), 앞의 논문, p.133

34) 조성운(2007)『戰時體制期1 日本視察團 研究』『사학연구』88, 한국사학회, 초록 참조

35) 국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pp.244-259

4. 근대의 양면성: 로고스근대성과 에로스근대성을 통해 본 일본시찰단의 성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시찰단의 주요시찰시설은 도시의 근대적인 시설, 도시 주변의 천황관련유적, 신사, 사찰, 도시의 공장들, 우량 농촌 등이었다. 시찰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나 『조선』, 『儒道』 등에 실렸다.³⁶⁾ 시찰단을 통해 일본을 관광한 조선인의 감상은 다양하였으나 전체적인 소감은 일본이 유도한 대로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과 일본에 대한 선망, 그리고 조선에 대한 비판이 주 내용이었다.³⁷⁾

이것은 닝왕의 지적에 따르자면, 근대성의 로고스적인 측면을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보다 근대화된 일본 시찰은 전통세계를 초월하는 합리성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로고스적인 합리성 충족은 조선민족으로서 조선의 형식적 합리성을 추구한 것 이외에 일제의 의도 즉 식민지 조선의 열등함을 느끼게 하는 의도적 계획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이 일본시찰단이 경험한 근대성의 로고스적 경험은 한편으로는 일제의 식민화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일종의 목적-수단 전도(ends-means inversion)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시찰단 대부분은 일본시찰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의식의 계기를 얻었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섬나라 일본에 대한 선입견은 조선보다 울창한 숲,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근대 문물을 경험함으로써 일본의 저력에 대한 놀라움과 조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려 했던 감정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느낀 일본에 대한 인상은 대체로 일본의 울창한 산림, 농업과 공업의 발달, 교육기관의 정비, 유적지등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이었다고 기술하였고 일본에 비해 조선이 낙후된 점을 지적하는 비판의 소감도 기술하고 있다.³⁸⁾

전체적인 시찰 소감은 일본 근대 문명에 대한 놀라움, 상대적인 부끄러움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도시의 근대적 시설에 대한 소감을 보면 공원이나 백화점, 철도역, 지하철, 대규모 식당 등 이른바 ‘문명화된 시설’에서 받은 충격을 표현한 소감도 볼 수 있었다.

36) 시찰단의 시찰 소감은 주로 박찬승(2006)의 논문에서 대체로 살펴본 것이며 주로 소감이 실린 『매일신보』, 『조선』, 『儒道』의 감상을 위의 논문(2006)에서 재인용하였다.

37) 이런 소감만을 읽어보면, 기존의 많은 연구들처럼, 당시 시찰단을 식민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유도된 것 즉 일본의 근대성과 상대적으로 조선의 야만성을 의식시키려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8) 박찬승(2006)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의 일본시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9집, 역사문화학회, pp.221-226

특히 시찰단원들이 일본의 대도시에서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변화가와 백화점들³⁹⁾이었다. 1920년대는 조선의 경성에서도 백화점들이 등장하고 있었지만 백화점다운 백화점들이 없었다. 특히 시찰단에게 주어진 변화가에서의 자유시간⁴⁰⁾을 끝낸 후의 몇몇의 감상에서는, ‘관광’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즐거움과 심미적 만족에 대한 소감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근대성의 에로스적 측면, 즉 인간 본능에 따라서 일본시찰의 경험에서 심미적 만족도 취했다고는 것을 의미한다.

1922년 강릉 유생 김재익이 강원도 유도개명회의 일원으로 동경을 다녀온 후 이러한 기록들을 남겼는데 하나는 미즈코시 백화점을 둘러본 후의 놀라움과 다른 하나는 대도시의 야경을 관광한 후 묘사한 글이다.

三越吳服店에 至하여 8層階에 踏上하니 百萬 家戶가 眼前에 森羅하고, 4皆平地에 山色을 不見하며, 본점은 동경 상점중 일대 장관이라, 萬種 物品에 櫻花로 蝕揚하며, 自動乘降機가 有하니 仙源佛界를 夢幻에 入한 듯하다.⁴¹⁾

上野驛에서 夕食하고 上野園을 歷過하니 찬란한 夜景은 灯火萬叢이 最上權威로 더군다나 瓦斯機를 발사하여 沈沈한 虛空界에 雙虹이 透閃하며, 혹은 일부 공원을 噴火山光勢로 변화되었더라.⁴²⁾

또한 1924년 연백군 면서기로서 동경을 둘러본 李鐘韶도 동경의 변화가의 빌딩과 백화점을 둘러본 소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동경 역전 丸內빌딩을 구경하니, 이는 三菱회사의 경영으로 철골연와조 10층인데, 총 평수 1만 8천평으로, 건축비 1천만 원이오, 사무소가 350이며, 수용인원은 1만 명 이상이라는데, 병원, 우편국, 은행, 식당까지 설비된 일개의 家舍며, 駿河町에 있는 三越吳服店은 8층이니, 各樣의 상품을 진열한 외, 도안부, 의장부, 의복부, 사진부, 원예부이며, 기타의 식당, 휴게실, 주악실의 설비가 정비되었으니, 실로 전국 제일의 백화점이니, 荊玉璞金이 그 값을 수하고, 吳姬越女가 그態를 揚하니, 천하의 寶와 천하의 美가 이에 盡하였으며, 8층 上階에 時時 奏樂함을 들음이 廣寒殿에 姮娥의 覺裳羽衣曲을 듣는 觀이 有하다.⁴³⁾

39) 박찬승, 앞의 논문, p.232. 조선인 시찰단 일행은 오사카와 도쿄를 가면 반드시 미즈코시백화점을 들렀고 그 외에도 이세탄백화점, 다이마루백화점 등을 둘러보았다. 시찰단은 대개의 경우 하루 일정이 끝나면 변화가에 풀어놓고 자유시간을 주는 식으로 시찰단 일행에게 변화가를 구경하게 하였다.

40) 위의 논문, pp.221-234

41) 金在翼(1922)『内地視察概要』『儒道』7호 6과, p.83. 박찬승, 앞의 논문, p.232

42) 金在翼(1922)『内地視察概要』『儒道』7호 6과, p.85. 박찬승, 위의 논문, p.234

43) 李鐘韶(1924)『内地視察로부터 歸하여』『조선』76, p.1, p.121, 박찬승, 위의 논문, p.233

이러한 시찰소감은 일제하의 의도된 정책에 의해서 기획된 시찰단이 시찰종료 후 귀국한 후 민중에게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일본에게 의지하여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임을 강조하는 자유롭지 못한 시찰소감의 피력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통한 근대성의 즐거움이 ‘천하의 보물과 천하의 아름다움이 다 모인 곳’으로 그 화려함에 매료되었던 것이다.⁴⁴⁾

이것은 1930년대의 전시동원체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일본시찰단의 시찰소감⁴⁵⁾ 등을 통해 ‘근대적 관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감상 등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의 사찰, 신사, 역사유적을 시찰한 후 소감에서도 일본인들의 미적 감각의 발달에 대한 지적, 문화유적의 우수성이나 보존에 대한 경탄도 나타나고 있다.⁴⁶⁾ 일본시찰단으로 일본을 경험한 조선인들은 충독부나 행정기관 등에 의한 로고스-근대성 속에서도, 본능, 충동, 욕망, 자발성, 느낌, 정열, 상상력이라는 에로스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감상문의 내용과 문학지에 실린 개인적 감상문을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창으로 보이는 건물, 煙突, 교량, 마차, 자동차, 전차, 행인들이 무심한 내 뇌에 별달리 인상을 준다. 기차는 벌써 品川驛前을 지나 어느덧 東京區域을 벗어난다. 지금까지 내 눈에 얼른거리던 무수한 가옥, 허다한 상점간판, 광고판은 기관차 연통에서 뿜는 흑연과 차륜, 궤도의 마찰 소리 속에서 뒤로 멀리 스러진다. 새로 새것이 내 눈에는 차창유리를 통하여 활동사진을 연출한다.⁴⁷⁾

개인적 감상문에서는 근대의 상징인 기차를 통해 여행에서 느끼는 차창 밖 풍경과 일상을 별다른 불거리로 상상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억압된 근대성 속에서 시찰단 관광 소감과 다소 자유롭고 개인적인 관광 소감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관광의 에로스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이들의 일본시찰이 비록 조선총독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고, 또 근대 합리성에 앞선 일본사회에 대한 로고스적 인식이 있었지만, 시찰단원들에게는 이러한 로고스적 측면 이외에 경험을 통한 심미적 감성을 자극하는 미적, 철학적 인식도 하고 있었던 것이다.

44) 박찬승, 위의 논문, p.233

45) 국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pp.244-259, 박찬승, 앞의 논문, pp.221-244에서는 일본시찰단에 대한 시선을 기술한 논설이나, 시찰단원의 관광 감상을 정리하여 두었다. 신문의 기사는 시찰단에 대한 비판적인 면도 보였고 시찰단들의 소감을 보면 일본의 유적지들을 보고 감탄하였거나 백화점, 건물 등 일본의 발전을 보고 놀라 조선의 분발에 대한 감상도 피력하였다.

46) 박찬승, 위의 논문, pp.241-243

47) 김엽(1919.12)「강호에서 동정호까지」『儒道』3호, p.67

임경석·차혜영외(2007)『『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p.489에서 재인용.

5. 맺음말

지금까지 한말과 일제하의 일본시찰단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1910년대에는 조선 총독부 주최의 시찰단의 성격과 구성원, 시찰경로를 통해 의도된 정책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1910년대 후반부터는 박람회 개최로 인한 시찰의 붐으로 많은 시찰단이 구성되었으며 1910년대 초반의 시찰단과는 달리 박람회 시찰 외에도 유적지 관광을 조선의 최상위 계층만이 아니라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반인(공무원, 회사원, 실업자, 농업인, 인쇄업자, 청소년, 교원, 종교인, 신문기자 등)들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관광으로서 ‘일본시찰단’의 목적, 코스, 계층의 다양성이라는 근대적 형태를 띠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이 때의 시찰단이 완전한 자율성을 가질 수는 없었으며, 어디까지나 그 주체는 총독부 산하 기관이거나,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라고 할지라도 총독부의 관여 혹은 영향력이 미치는 단체였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로고스-근대성의 지배하에 이루어진 관광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 ‘일본시찰단’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적 성격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들의 개인적 감상에서 나타나듯이, 당시 시찰단 구성원들 중에는 일본 시찰에서 근대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접하여 스스로의 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에서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일본의 근대 문명에 대한 충격, 경탄, 그리고 부러움 등의 소감이야말로 Ningwang이 말하는 압도적인 ‘로고스-근대성’ 속에서 에로스-근대성이 ‘일본시찰단’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소수의 단편적인 시찰 감상을 가지고 Ningwang의 한 가지 개념을 통해서 당시 ‘일본시찰단’을 한국에 있어 근대관광의 시초라고 완전히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찰단의 목적, 주체, 구성원의 계층, 코스에 대한 분류와 분석은 물론, 개개인의 감상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더욱이 해방 후에 이루어진 다양한 국내외 관광과의 비교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시찰단’은 로고스-근대성은 물론이며 소수이긴 하지만 그 구성원들의 내러티브에서는 에로스-근대성의 단초가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관광의 시초라고 파악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參考文獻】

- 국사편찬위원회편(2008)『여행과 관광으로 본 근대』
 Ning Wang), 이진형외 역(2004)『관광과 근대성』일신사
 주요역사연구회편(2007)『식민지 동화정책과 협력 그리고 인식』두리미디어
 박양신(2005)「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동양학』3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pp.69-89
 박찬승(2006)「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의 일본시찰」『지방사와 지방문화』9, 역사문화학회, pp.203-248
 서기재(2008)「관광의 역사와 문헌을 통한 한국 근대 관광 고찰」『아시아디아스포라』2집, pp.5-33
 인태정(2007)『관광의 사회학-한국관광의 형성과정』한울 아카데미
 임경석·차혜영외(2007)『『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조성운(2004)『『매일신보』 통해 본 1910년대 일본시찰단』『한일민족문제연구』6, 한일민족문제학회, pp.3-36
 _____(2006)「1920년대 초 일본시찰단의 파견과 성격」『한일관계사연구』25, 한일관계사학회, pp.319-357
 _____(2007)「일제하 불교시찰단의 파견과 그 성격」『한국선학』18, 한국선학회, pp.133-185
 _____(2007)『戰時體制期 日本視察團 研究』『사학연구』88, 한국사학회, pp.1055-1111

논문투고일 : 2017년 04월 05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5월 08일
 2차 수정일 : 2017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5월 16일

〈要旨〉

‘일본시찰단’의 근대관광적 성격

- 근대성의 양면성(로고스-에로스) 개념을 중심으로 -

제옥경

한일 양국간의 관광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 여러 측면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서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관광 연구도 활발해 지고 있다. ‘일본시찰단’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조선총독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진 시찰단이나 관광단을 말하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근대적 관광의 욕구충족’이라는 능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관광은 서양의 근대관광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근대관광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10년대의 초반에는 주로 의도된 정책의 시찰단이었지만 후반부터는 박람회 시찰, 유적지 관광 등이 좀 더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졌고 1930년대에는 전시하의 ‘성지순례’등의 시찰단이 주를 이루었다. 식민지 하에서의 시찰단 성격, 시찰지역, 개인감상문을 ningwang의 근대의 양면성 개념(로고스-에로스)을 적용하여 보면, 그들은 강요되고 억압된 수동성의 관광 속에서도 욕구, 본능, 정열, 상상력을 추구하였다는 능동성을 엿볼 수 있다. 제한적으로 근대관광의 시작으로 보아온 ‘일본시찰단’의 성격에 관광을 통해 얻어지는 욕구충족을 더한다면 한국 근대관광의 시초로 파악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Modern tourism character of Korean observation tourist to Japan in Japanese imperialism era

- Focused on the concept of two-facedness of modernity(Logos-Eros) -

Je, Ok-Kyung

There is a tendency that studies on tourism between Korea and Japan have focused on economical aspect. But recently, the study of tourism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en conducted in various aspects. One of them is that the study of tourism on the Japanese imperialism period is being conducted actively. There was the group of observation trip to Japan that means the group of observation trip or group tourists medi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 local government or a private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sure of modernity by focusing on the activity that satisfy desires through modern tourism. It is obvious that Joseon-people tour in Japanese imperialism era was different from modern Western or Japanese tourist imitating Western modernity. The intension of Joseon-people tour was the observation tour for a policy objective in the early part of 1910s. After that, the purpose of Joseon-people tour was mainly the inspection to exhibition or a tour of historical place. In 1930s, tourists of various class mainly visited the Holy Land in Japan during 1930s' of war. I make sure that they had activities to pursue desires, instinct, passion and imagination by applying Ning Wang' concept of two-facedness of modernity(Logos-Eros) to the character, the inspection place and reports of observation tourists to Japan.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regard Korean observation tourist to Japan in Japanese imperialism era as the beginning of modern tourism, it is able to say that at least, their trip to Japan was the beginning of modern tourism of Korean because of satisfying their desires by that.